

研究論文

광주 風詠亭의 문화사적 의의

권수용*

- | | |
|------------------------|--------|
| I. 머리말 | V. 맺음말 |
| II. 김언거와 풍영정 | <참고문헌> |
| III. 풍영정 제영을 남긴 인물의 특징 | <국문요약> |
| IV. 풍영정의 위상 | |

I. 머리말

풍영정은 金彦珣(1503~1584)가 지은 정자로, 광주와 나주, 장성 등지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일찍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특히 광주나 인근 지역의 수령이나 방백들이 이곳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의례적으로 시문을 남기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만큼 풍영정은 풍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

한편 풍영정이 세워졌던 16세기는 호남지역에 원림의 축조가 활발하게 진행된 때이다. 그들은 대체로 산수 좋은 곳에 정자나 원림을 축조하고 여기에서 소요하며, 스스로를 지키고 후학을 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활발한 교유도 하였다. 그럼으로써 누정이나 원림의 공간에서는 담론이 형성되고, 시단이 이루어져 소통의 공간, 문화의 공간이 되게 하였다. 16세기 원림의 특징은 이처럼 사람들의 교유처

* 전남대학교 호남한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화재학전공(heidik@hanmail.net).

가 되었고, 창작의 요람지가 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원림문화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호남 원림문화의 특징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6세기 풍영정 주변지역에 세워진 누정원림 중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곳으로는 소쇄원(담양)·환벽당(광주)·서하당 및 식영정(담양)·환학당(담양)·면양정(담양)·관수정(장성)·요월정(장성)·장춘정(나주)·소요정(나주)·물염정(화순)·창랑정(화순)·양벽정(순천)·환선정(순천)·관수헌(장흥) 등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누정원림과 작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김언거의 행적은 거의 유실되고, 조금 남은 기록 모음인 『漆溪集』¹⁾도 1922년에야 간행되었으며, 풍영정의 현판시를 모은 『風詠亭詩選』²⁾도 얼마 전에서야 발간되었을 뿐이다. 풍영정에 대한 연구는 다행스럽게 최근에 들어서 연작제영인 <칠계10영>을 가지고 그 속에 함의하고 있는 문화코드를 읽어낸 논문이 한 편 나온 것이 있다.³⁾ 그러나 이 논문은 사대부의 이상세계를 담고 있는 원림의 보편적 특성을 풍영정의 집경사에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김언거의 유집과 현판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김언거라는 인물과 풍영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며, 이곳에 시문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시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호남의 원림문화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살펴서 풍영정의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II. 김언거와 풍영정

1. 김언거의 생애

김언거(1503~1584)의 자는 季珍이고, 호는 漆溪·豊咏·灌圃堂이며, 본관은 광

1) 김언거, 『漆溪集』(1922);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칠계유집』(호남문화사, 2004).

2)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풍영정시선』(호남문화사, 2007).

3) 박연호, 「광주 풍영정 원림의 공간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 36(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산이다. 金台鉉의 후손이며, 의주교수인 金禎과 林叔亨의 딸 사이에서 셋째아들로, 광주의 馬池面 仙滄里(현재의 풍영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중종 20년(1525)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1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1532년에 예조좌랑 및 정언에 제수되었다. 1542년에 낭관을 지내다 체직되었으며, 1545년에 금산군수에서 사헌부 장령이 되었고, 1546년에는 상주목사가 되었다. 1550년에는 통정으로 승진되었고, 그 이듬해에 응교가 되었으며, 1552년에는 헌납이 되었고, 1553년에 연안부사를 역임할 때는 시폐소를 올린 적이 있으며, 1555년에 홍문관교리가 되었고, 1557년에 승문원판교에 올랐으며, 1560년에 퇴임하였다.⁴⁾ 그 후 풍영정에서 소요하다가 향년 82세로 죽었으며, 칠천가의 선창산에 안장되었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명종대에 벼슬을 할 때 윤원형 일파에 붙어서 사림을 모함한다거나 인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질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⁵⁾ 그가 당시의 권귀에 의해서 淸顯의 관직을 얻은 것이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유명한 사림들과의 돈독한 詩交가 있던 것으로 보아 그 관점은 편협된 듯하다. 그가 교유한 사람들은 훈구척신들도 많지만 사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번잡한 관직생활보다 고향에 꾸며놓은 원림으로 돌아가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영정에 대해서 읊은 시 속에 고향에 돌아와 한가하게 살고 있는 김언거를 사모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김언거의 행장은 李好閔과 金麟厚가 찬했다고는 하지만,⁶⁾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朴光玉이 지은 짧은 묘지명만이 있다. 김언거라는 인물이 누구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宋麟壽나 羅世纘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김언거의 글들은 임진왜란 때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그의 글이 남아있는 것은 조금밖에 없다. 그의 글은 1922년에 가서야 종손집에 보관해온 시문과 여러 사람들의 문집에 산견된 작품들을 가려 뽑아 『漆溪集』이란 이름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유집을 통해서 그가 남긴 작품으로는 <次梁山甫瀟灑園韻> 2수, <次息影亭韻> 1수, <次贈李龜巖禎壽瑞詩> 3수(1547년), <呈李退溪> 2수, <次韻答

4) 『광산김씨족사공과보』 권6; 『명종실록』; 『국조방목』 참조

5) 『명종실록』, 명종7년 2월 14일; 명종10년 11월 18일; 명종15년 11월 16일.

6) 『漆溪遺集』, 목사 李鼎運(1743~1800)이 지은 <풍영정 跋(1793년)>, 288쪽.

南溟處士> 2수, <輓奇高峰大升> 1수, <祭羅松齋世續文>, <祭柳眉巖希春文>, <祭安判官文>, <朴進士敏中墓碣銘> 등 시 11수, 제문 3편, 묘갈명 1편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그러나 박광옥이 지은 묘지명에는 “평생 학문을 좋아하여 시령 위에 만권의 책을 꽂아놓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竹窩彙言·宋史節要·歷代名臣諫疏抄·家禮抄 등 무려 수십여 권이 모두 선생의 손에서 나왔다”⁸⁾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김언거가 직접 가려 뽑아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이중 ‘죽와회언’은 풍영정에 있던 건물의 이름이 ‘죽와’인 것으로 보아 집안선조 때부터 내려온 글귀를 모은 것 같고, ‘역대명신간소초’는 『광주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諫疏를 수집하여 왕에게 바치고 결연히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⁹⁾ 한편 ‘송사절요’와 같은 것은 송인수가 한번 보고 칭찬하고 州郡으로 하여금 간행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¹⁰⁾ 이러한 사실은 송인수가 1543년에 광주관찰사를 지낼 때 ‘사서삼경’을 간행하는 등 유학을 장려하는 데 힘썼다고 하는 내용¹¹⁾과 상통한다. 위 글을 통해서 김언거가 그동안 읽어 놓은 책이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그가 유학의 장려와 후진교육에 관심이 많았음을 뜻한다.

김언거의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보기는 쉽지 않으나, 남아있는 한시작품을 통해서 그의 작품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칠계집』에는 <문추退溪>란 제목으로 두 수가 실려 있는데, ‘청원정운’을 사용하여 지은 시이다.

<문추退溪> 이퇴계에게 올린다.
百谷波濤襄小塘 출렁이는 파도가 작은 연못을 덮치니,
秋來那得見清香 가을이 와도 어디에서 청향을 볼 수 있나.

7) 위의 책.

8) 위의 책, <漆溪墓誌銘>(박광옥 찬), “平生好學, 架插萬軸, 手不釋卷, 而竹窩彙言, 宋史節要, 歷代名臣諫疏抄, 家禮抄, 凡數十有餘卷, 皆出于先生之手也.”

9) 『광주읍지』 「인물」, 김언거 항. 이러한 사실은 유희춘의 『미암일기』 丙子年 11월 27일항(二十七日. 光州金判校彦踞, 以所編述諸賢諫疏一冊, 送來示之, 仍陳上達之意, 問其當否. 余答之曰, “竊觀用工精勤, 深嘆深嘆……”)에도 나온다.

10) 『광산김씨족사공과보』 권6, <승문원판교 칠계언거 행적> .

11) 『圭菴先生文集』 권4. 「연보」 <二十二年癸卯 先生四十五歲> “令各官, 開刊四書五經.”

紅雲翠幄漸無分 붉은 구름 푸른 장막 구분 없이 참담해져
 入夜憑欄賞月光 밤이 되면 난간에 기대어 달빛만 감상하네.
 那得繁英颺晚風 어디에서 가득한 꽃봉오리 늦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까나.
 只看青草滿池中 다만 푸른 풀 못 가운데 가득함만을 보네.
 空名掛壁知無興 헛된 이름 벽에 걸어두고 흥 없음을 알겠으니,
 淨植問夫濂上翁 연꽃에 대해서는 주렴계에게 물어야 하리.

淸遠亭은 김언거의 중형인 金彦瑀¹²⁾의 정자로, 1546년에 창평으로 이거하면서 그 아우인 언거에게 준 것이다.¹³⁾ ‘청원’의 뜻은 ‘香遠益淸’이라는 주렴계의 <애련설>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청원정에는 연꽃이 심어진 연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못은 강가에 위치해 있어서 여름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연못까지 덮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는 김언거가 고향에 歸臥하여 자연과 함께 살고 있을 때이다. 그런데 연못에 피어있던 연꽃이 연잎과 함께 모두 파도에 휩쓸려서 진흙 속에 파묻혀버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작자는 크게 상심한 마음을 위시의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마지막 구에서와 같이 ‘亭亭淨植’의 진정한 의미를 주돈이에게서 찾고자 하고 있다. 그는 가까이 있는 자연을 보고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어 속에는 어떤 도학적인 내용이나 장식적인 꾸밈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자연에 대한 애정을 담담히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황도 역시 답시를 보내면서 위로하고 있다. 이황의 답시 끝에는 설명하는 짤막한 문장이 붙어 있다. 그는 여기에서 “용경 정묘년(1567년) 초겨울에 온 편지에 ‘청원정의 온 못이 여름 장마에 매몰되어서 꽃 중의 군자인 연꽃이 거의 다 해를 입었다’고 하니 그 소식을 듣고 서글웠다. ‘저도 일찍이 연당을 만들었는데, 산의 샘물이 너무 차가워서 꽃이 무성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한 방법을 써서 재배할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때문에 두 수의 시를 쓴다”¹⁴⁾라

12) 金彦瑀: 호는 淸遠亭이다. 옥과 訓導를 지냈으며, 그의 행장은 金允秋가 썼고, 고경명과 박광옥이 지은 輓詩가 있다.

13) 『창평향교지』, 「각성씨입향사」, 광산김씨.

14) 위의 책, 26쪽, “隆慶丁卯, 孟冬來書, 淸遠全塘, 沈沒夏潦, 花之君子, 損害殆盡, 聞之悵然. 此間, 曾作蓮塘, 山泉太冷, 不見花盛, 明年以別法栽, 答故兩絕云.”

고 쓰고 있다. 이때 이황은 도산서당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정우당’이라는 연지가 있다. 지금도 연꽃이 심어져 있는데, 아마 이것을 보고 한 말인 듯하다. 이황이 청원정운을 사용하여 김언거에게 보낸 시는 모두 4수가 된다.

『칠계유집』에는 청원정을 소재로 한 시가 몇 수 더 실려 있다. 陽(光자)운과 東(翁자)운을 가진 2수의 시가 한 덩어리로서 김언거 4수, 이황 4수, 曹植 2수, 柳泗 2수, 李週 2수 등이 있다. 김언거의 시는 청원정에서 지은 것 외에 소쇄원과 식영정에서 남긴 시가 더 있다. 여기에서는 식영정 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次息影亭韻> 식영정 운을 따라 짓다.
 天地容吾輩 천지가 우리들을 용납하시어
 江湖一草亭 강호에 한 초정이 있게 되었네.
 君顏方濯濯 그대의 얼굴은 한창 빛나는데,
 我髮已星星 나의 머리는 이미 새하얗구려.
 峽月常留榻 산골짜기 달은 언제나처럼 평상에 머물고
 雲山自遶庭 구름낀 산은 저절로 뜰을 돌렸네.
 他時風雪夜 다른 날 풍설이 치는 밤이면
 乘興扣巖扃 흥을 타고 바위 빗장 두드릴 것이네.

식영정은 1563년에 김성원이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김언거가 환갑 이후의 나이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속에 들어서있는 식영정의 모습을 시로 읊어서 주인인 김성원에게 준 것이다.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취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함련에서 상대방의 젊음을 자신의 나이와 비교하여 표현한 점이 재미있다. 이장에서 김언거의 시편들을 볼 때, 그의 문학적 성향은 운유돈후함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자연의 승경을 애호하는 내용이 많이 보이며, 일상적인 생활의 시어로 담담히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언거의 교유관계는 그가 관직생활을 오래했고, 활동적이었던 탓에 폭이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언거와 교유한 사람들을 보면 훈구와 사림, 또는 학자와 문장가에 대한 구별이 없이 두루 관계를 유지하였다. 현재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작품들로 볼 때, 김언거와 가장 밀접한 교유를 하였던 사람으로는 李滉·黃俊良·宋麟壽·金麟厚·宋純·林億齡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羅世纘·曹植·李禎·朴敏

中·奇大升·嚴旻·柳希春·柳泗·朴光玉·鄭澈 등과도 역시 친밀한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풍영정에는 한 번도 와보지 않았을 사람들의 시도 있으니, 예를 들면 이황, 황준량, 조식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다.

김언거와 평생 가장 친밀한 교유관계를 가진 사람은 이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대승과의 왕복편지 가운데에서도 김언거에 대한 안부를 묻곤 한 것¹⁵⁾을 보아도 이황의 김언거에 대한 친밀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황이 김언거의 시에 차운하거나 준 시는 37수 가량이거나 된다. 그러나 김언거가 이황에게 준 시는 2수만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볼 때, 김언거의 많은 시가 유실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황준량 또한 『칠계유집』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문집에는 김언거와의 관련시가 23수나 있다.¹⁶⁾ 『칠계유집』을 만들 당시 황준량의 문집은 빠졌던 것 같다. 황준량은 퇴계의 문인으로, 김언거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밖에 임억령도 <季珍風詠亭次諸公韻> 1수¹⁷⁾ 외에 김언거의 시에 수창하거나 답한 시 8수¹⁸⁾가 있고, 송인수도 김언거에게 준 시가 7수 전한다.¹⁹⁾ 이러한 사실을 통해 김언거의 한시 작품이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풍영정이 오늘날까지 그 위상을 높이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김언거의 적극적인 풍영정 알리기 활동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평생 동안 풍영정에 많은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자를 외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명한 사람들에게서 차운시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예를 다음 이황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세붕의 시가 있는 김언거의 시첩 뒤에 쓰다.>

나의 벗 김계진은 일찍이 서울에서 나와 더불어 같은 마을에 세들어 살았었다. 그가 나에게 이르길, “나의 고향집인 광주의 칠수가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풍영이라고 하여 나의 뜻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은 시를 보여 주었다. 나도 여기에 이어서 화운하였으니, 계진의 즐거움이 있는 바를

15) 기대승, 『高峰集』, 「兩先生往復書」.

16) 황준량의 『錦溪集』에만 실려 있다.

17) 임억령, 『石川先生詩集』 권7.

18) 임억령, 『石川集』 제4책, 221~222쪽, <酬季珍詩韻> 7수와 <再答季珍韻> 1수.

19) 송인수, 『圭菴先生文集』.

알게 되었다. 지난 해 계진이 상주목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 고을에 또한 풍영루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우연히 고향의 정자와 같았다. 내가 짐짓 마음으로 기이하게 여겼는데, 어제 계진이 내가 있는 단산으로 안부편지를 보내오며, 시첩도 함께 부쳐왔다. 뜯어서 그것을 읽어보니 곧 주세봉이 이를 읊은 것으로 또 스스로 발문까지 하였으며, 黃耆老가 글씨를 쓴 것이었다. 그 시도 아름답고, 그 발문도 찬란하여 풍영의 즐겁고 계진의 뜻을 주세봉이 이미 다하고 있었다. 그리고 황기로의 필적이 더욱 보배로운데, 오히려 어찌 내가 짓기를 기다릴 것인가? (중략) 1548년 6월 30일, 竹洞西澗의 병든 늙은이가 단양군의 집에서 쓰다.²⁰⁾

위의 글을 통해서 이황과 김언거가 서울에서 한 동네에 살았었던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김언거와 이황이 모두 서울에 있던 1546년 이전으로 보인다. 이황은 1546년에 낙향하였고, 김언거는 1546년에 상주목사에 부임하였다. 그렇다면 추측컨대 김언거가 금산군수를 지내다가 사헌부 장령으로 서울에 있었던 1545년 무렵이 아닌가 한다. 이때 김언거는 여러 사람들이 지은 풍영정 시를 보여 주고, 이황으로부터 차운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 후 주세봉은 상주목사로 부임하는 김언거를 보내면서 시를 한 수 지어주었는데, 바로 상주에 있는 풍영루의 운을 써서 준 것이며,²¹⁾ 이것은 우연하게도 고향에 있는 정자의 이름과 서로 같았다. 이황은 여기에 다시 차운시를 쓰고 위와 같은 발을 붙인 것이다.

이처럼 김언거는 풍영정을 알리고 시문을 모으는 일에 힘을 쏟았으며, 그런 까닭에 풍영정 차운시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위의 글을 통해서 외지인으로서 관직에 있던 경우가 아닌 사람이 시문을 남긴 경우는 이처럼 김언거가 직접 시첩을 보여주면서 차운시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는 계속해서 더 나타나고 있는데, 1552년에 쓴 이황의 글을 더 살펴보겠다.

20) 이황, 『退溪先生文集』 권43, [跋] <書周景遊題金季珍詩帖後>, “吾友金君季珍, 嘗於京師, 與余賃居同巷, 謂余曰, ‘吾舊家光之漆水上, 臨水築亭, 名之爲風詠, 以寓吾志焉.’ 遂出示諸公詩什. 余亦續和之, 因以知吾季珍之樂之所在也. 頃年, 季珍出爲商州牧, 州治亦有風詠樓, 其名之偶合於家亭也. 余固心異之, 昨, 季珍辱書來問於丹山, 又寄一帖, 披而讀之, 則乃周君景遊詠此事, 又自爲跋, 而黃上舍耆老所書者也. 其詩蔚然, 其跋粲然, 風詠之樂, 季珍之志, 景遊已盡之矣, 而上舍筆迹尤可寶, 尙何待於余哉?(중략) 嘉靖戊申季夏晦, 竹洞西澗病翁, 書于丹陽郡齋.”

21) 주세봉, 『武陵雜稿』 권3, 原集, <奉送金司成彥瑠出牧尙州, 次風詠樓舊韻>, “樓高沙伐國, 人臥政神明. 城郭丁禽集, 池塘謝草生. 身如沂水浴, 心與太虛清. 日闕東南客, 規規幾役名.”

옛날 1548년에 나는 바야흐로 단산도원에서 병을 요양하고 있었다. 광산 김계진은 이때 상주목사가 되었는데, 灌圃魚公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풍영정 2절을 부쳐오면서 나로 하여금 화운하도록 하였다. 나는 감히 사양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지금 계진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다. 계진이 다시 이 서첩을 보여주었은즉, 뒤에 와서 그 시에 부쳐서 화운한자가 무려 수십여 인이었다. (중략)그와 내가 일찍이 한 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마음과 일이 어긋났다. 그래서 칠수의 갈매기를 놀라게 하고, 병산의 학을 원망스럽게 한 것이 같다. 그리고 질병으로 쇠퇴해져서 마땅히 가야하는데 가지 못하고 원림은 더욱 황폐해졌으니,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새롭게 아는 것에서는 나는 더 심하다. 매번 한 번 책을 어루만지며 흥으로 삼았는데, 하루는 계진이 방문하여 그 서첩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이에 몇 마디의 말을 그 말미에 기록하여 돌려보낸다. 1552년 8월 30일, 이황이 한양 서문에 있는 집에서 쓰다.22)

위 글을 통해, 김언거가 상주목사를 지내던 1548년에 단산에 있던 이황에게 灌圃魚公²³⁾이 지은 풍영정 시를 보여주면서 차운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또 5년 뒤인 1552년에 이황을 서울에서 만나 그동안 풍영정 시를 모은 ‘風詠亭詩帖’을 보여주면서 차운해주길 요구했는데, 그 시첩에는 당대의 대단한 문장들 수십인의 풍영정 차운시가 실려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김언거는 헌납으로 있을 때이고, 이황은 성균관대사성에 임명되었을 때이다. 김언거나 이황은 모두가 한때 벼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마음에 부끄러움으로 남았음을 알 수 있다.

시첩에 대한 일은 황준량의 시 <京師次金季珍詩帖韻>에도 보인다. 황준량은 서울에서 김계진의 시첩을 보고 차운하여 시를 지어주었는데, 이 시는 상주의 풍영루 운에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김언거는 광주의 풍영정 뿐만 아니라, 상

22) 『퇴계선생문집』 권43, 「跋」 <書金季珍風詠亭詩帖後>, “昔在戊申之歲, 僕方養疾於丹山道院, 光山金君季珍, 時爲尙州牧, 見寄以灌圃魚公爲已作風詠亭二絕, 令僕僭賡之, 僕不敢辭焉. 厥後五年, 而今與季珍遇於京師, 季珍復示以此帖, 則後來屬其詩而和之者, 無慮數十餘家. (중략)君與我皆嘗一去而復來, 心與事違, 使漆水鷗驚, 屏山鶴怨則同矣. 而疾病衰頹, 當去不去, 舊業益荒, 新知不進之愧, 則在僕甚焉. 每一撫卷, 爲之興喟. 一日, 季珍來訪, 索還其帖, 仍識數語於其尾而歸之. 皇明嘉靖壬子重陽前一日, 眞城李滉景浩甫, 書于漢陽西門之寓舍.”

23) 魚得江(470~1550)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문집인 『灌圃詩集』에는 나와 있지 않다.

주의 풍영루에 관해서도 시첩을 만들어서 시문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황은 풍영정에 직접 온 적은 없지만, 앞서 사람의 시첩에 차운하는 형식을 빌려 시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풍영정에 그의 시가 걸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김언거 생전에 지어진 풍영정 차운시에는 외지인이 상당수 올라 있게 되었다. 그들은 대부분 당대에 문장가나 시인으로 소문난 사람들이거나 대학자들로 추앙을 받던 사람들이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풍영정은 대대로 빛이 날 수 있었고,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 꼭 찾아야 할 곳이 되었던 것이다.

2. 풍영정의 역사

현재 풍영정은 김언거가 벼슬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정자라고 알려졌다. 그가 벼슬을 그만둔 해는 1560년이니까 정자의 초축연대는 1560년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원림이 치사후의 휴식지소로서 세워졌다고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원림을 경영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²⁴⁾ 풍영정의 경우도 그보다 이전에 지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먼저 宋麟壽(1487~1547)의 시가 걸려있음을 볼 때 적어도 1547년 이전에 이미 풍영정이 세워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김언거가 서울에 있을 때인 1545년경에 이황에게 풍영정 차운시를 받은 적이 있고, 1546년에는 상주목사가 되었는데, 상주에도 같은 이름의 ‘풍영루’가 있어서 기이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 여기에서 풍영정이 1545년 이전에 이미 지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다.

한편 송순의 시인 <登金僉正彦踞風詠亭, 次宋監司麟壽號圭庵韻, 癸卯>²⁵⁾에서는 宋監司의 시에 차운한다고 하면서 癸卯年(1543년)으로 적고 있다. 송인수는 윤원형 등에게 미움을 당해 1543년에 전라도관찰사로 좌천되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김언거는 이미 1543년이나 그 이전에 자신이 사는 곳에 풍영정을 짓고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풍영정과 한 구역에는 이미 ‘淸遠亭’이라는 정자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

24) 권수용,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인문연구』, 55호(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393~394쪽.

25) 송순, 『侂仰集』 권2, <登金僉正彦踞風詠亭, 次宋監司麟壽號圭庵韻, 癸卯>.

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말했듯이 중형인 김언우의 정자인데, 1546년에 창평의 聲山으로 이거하면서 아우인 언거에게 주고 간 것이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선창산 칠천가에는 이미 중형 김언우가 청원정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구역에 풍영정도 세워져 형제가 나란히 정자를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546년 무렵 김언우가 부인의 고향인 창평으로 이거하자, 청원정과 풍영정은 이제 오로지 김언거가 경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풍영정의 앞에는 漆川(현재의 극락강)이 흐르고 있으며, 정면으로는 무등산이 바라보인다. 정자의 이름은 『論語』 「先進篇」의 ‘浴乎沂風乎舞雩詠而歸’라는 曾點의 말에서 따온 것으로, 물욕이 없이 살고자하는 주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정자명을 통해서 김언거가 추구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풍영정의 시는 앞서 밝혔듯이 송인수에 의해 1543년에 처음 이루어졌고 이때 송순이 차운을 하였으며, 이후 1546년에도 신잠, 송흙, 유희춘 등이 차운하였다. 그런데 이 풍영정은 김언거 당시에만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고, 후대에 가서 더욱 활발히 교류활동이 이어진다. 풍영정의 주인은 장자들이 이어갔음을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이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풍영정을 지켜간 사람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 (1) 金彦琚 — (2) 光符(호: 灌圃堂) — (3) 致諫(1562~?, 호: 守眞堂) — (4) 斗瞻(1590~?) — (5) 廷赫(1611~?, 호: 竹篙) — (6) 以呂(1633~?, 호: 書樓) — (7) 萬龜(1673~1741) — (8) 時源(1724~1792, 호: 慕漆齋) — (9) 達生(1745~1791, 호: 居易堂) — (10) 修吉(1773~1815) — (11) 兌潤(1808~1857, 호: 樂水庵) — (12) 永翰(1840~1873, 호: 枕月堂) — (13) 熹洙(1864~?) — (14) 容哲(1887~?)

풍영정과 한 구역에는 김언거 당시와 후대에도 여러 정자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언거 생전에는 앞에서 말한 ‘청원정’이 있었고, 또 이황의 <寄題灌圃堂>²⁶⁾이란 시에 보이듯이 ‘관포당’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언거의 아들 광부²⁷⁾의 호도 ‘관포당’인 것을 볼 때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

26) 『퇴계선생문집』 별집 권1, <寄題灌圃堂, 金彦琚號>, “漆園傲吏離風塵, 千載同歸漆水人, 巧宦已拋蹤徑惡, 幽居還帶圃畦新, 提攜一甕能全道, 俯仰諸機自斷眞, 未似多言端木氏, 他年我不愧逡巡”
 27) 金光符: 호는 灌圃堂이다. 선무량 군자감주부였으며, 임진왜란시 권율이 창의할 때 여러 아들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손자 치원²⁸⁾은 ‘수진당’을 경영하였다. 수진당에서 시를 남긴 사람은 李安訥 2수, 林棟 2수, 張雲翼, 黃赫, 申流, 洪禹錫, 吳斗寅, 蔡慶先, 兪涵, 尹暉, 呂爾徵, 吳允諧 등이 있다. 5세손 정혁은 ‘죽와’를 경영했는데, 죽와에서 시를 남긴 사람은 李堯臣, 宋基泰, 趙全素, 林俠, 李維漢, 嚴昕 등이다. 여기에 엄흔의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죽와는 김언거 생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6세손 이려는 ‘서루’를 경영했는데, 서루에 시를 남긴 사람은 朴漢, 尹絳, 金弘錫, 尹履之, 金時粲 2수, 尹順之, 尹坵, 宋光拭, 金灑, 申景洛 2수, 韓佑一, 韓以明, 宋錫範 2수, 申景淇, 姜綱, 金得元, 南飢, 崔壽錫, 李溟, 金道淵 2수, 李謙著, 金鎮商, 李泳, 柳景深 등이 있다. 이밖에도 거이당 달생에게 시를 준 사람들도 많은데, 徐有升 2수, 朴基正, 李復永, 尹致容, 沈宜復 등이 있다. 여기에서 읊은 시들은 모두 풍영정의 정취를 읊고 있으며, 55수 가량이나 된다.

한편 후손 金重燁은 1776년에 『江湖漫詠』을 지어서 김언거와 풍영정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7언배율 280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먼저 풍영정의 승경과 김언거의 행적을 서술하고, 이어서 이황과 김인후가 읊은 10영을 서술하였으며, 다음에는 김언거와 동시대에 살면서 종유했을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다음으로 현판시가 있는 사람들을 서술하였는데, 먼저 시로 읊고, 그 아래에 세주로 인물의 인적사항을 적고 있는 형식이다. 대개 1운마다 인물의 인적사항을 적고 있는데, 그 선조와 아들 및 손자까지 적고 있으며, 풍영정차운시가 있는 사람은 차운시가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이황과 김인후에서부터 숙종대 인물인 李泌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끝에 풍영정차운시를 한 수 지어서 붙여 놓았다. 김중엽은 한편으로 1777년에 고경명의 6대손인 高晷과 협력하여 여러 문헌을 조사 정리하여 포충사 문헌록을 편찬하기도 하였다.²⁹⁾ 한편 풍영정시를 모은 작업은 김중엽이 『江湖漫詠』을 지을 당시인 1776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러놓고, 권율장군을 도우라고 말했다. 아버지 김언거와 호가 서로 중첩되고 있으니, 누군가는 잘못 기록된 것 같다.

28) 金致諫(1562~?): 자는 和濟, 호는 守眞堂이다. 顯信校尉를 역임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권율장군을 도와 이치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29) 고경명, 『국역제봉전서』 해제, 21쪽.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중엽이 『江湖漫詠』을 지은 1776년 무렵에는 풍영정의 규모가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향촌에서 가문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후손이 계속 나와야 하는데, 김언거의 후손 중 예선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선조를 알리고 그 유적을 더 찬란하게 꾸미는 활동을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영정의 규모가 한동안 대단히 컸던 것은 기본 재력이 상당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근대에 들어 풍영정은 1898년에 基洙가 중수했으며,³¹⁾ 이때 奇宇萬이 중수기를 썼다. 1922년에는 풍영정 옆으로 철도가 부설되면서 경관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이에 발심을 하여 『칠계집』을 발간하는 등 보존에 힘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풍영정은 초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세대에도 활발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풍영정시를 남긴 사람들의 후손들이나 풍영정의 후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를 하며, 이곳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시문을 남기기도 했던 것이다. 풍영정은 현재 시문화재자료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마루로만 된 정자에 난간이 부분만 둘러져 있다. 정자 안쪽에는 70여개, 130여수의 시판과 韓石峯이 쓴 ‘第一湖山’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III. 풍영정 제영을 남긴 인물의 특징

초기에 풍영정에 시를 남긴 사람은 宋麟壽, 李滉, 金麟厚, 宋純, 申潛, 李士弼, 蘇世讓, 林億齡, 申光漢, 鄭士龍, 宋欽, 周世鵬, 奇大升, 朴光玉, 吳謙, 丁應斗, 閔箕, 柳希春, 鄭惟吉, 高敬命, 辛應時, 朴祐, 南應龍 등이 있다. 이들은 풍영정의 운에 차운한 사람의 시 만이 올라 있는 경우이고, 이밖에도 풍영정운에 차운한 것이 아니지만, 풍영정 관련시를 읊은 사람으로 鄭澈, 柳泗, 嚴昕 등이 더 있다. 고경명의 경우에는 풍영정운에 차운한 시 1수 외에 <觀漲次漆溪先生韻> 3수³²⁾가 더 있고,

30) 金重燁이 지은 『江湖漫詠』의 거의 끝부분의 세주에 “漆溪於本亭上, 又構清遠亭灌圃堂守眞堂, 亦俱諸名流題詠, 今廢”라고 설명하고 있다.

31) 『풍영정시선』, <풍영정 연혁>, 203쪽.

32) 『제봉집』 권2, <觀漲, 次漆溪先生韻>(5언율시 3수).

송순도 위의 풍영정차운시 외에 김언거에게 주는 시 3수가 더 있다.³³⁾ 김인후도 <풍영정차운시>와 <칠계10영> 외에도 5수가 김언거와 관계한 시이며, 정철도 김언거에게 주는 시 3수가 있고, 박광옥도 김언거와 관련시 5수와 <칠계10영> 중 5수를 남겼으며, 신잠도 교유시 2수를 남겼고, 정사룡도 1수가 더 있다.

이황이나 주세붕의 경우 풍영정 시를 남겼지만, 앞서 살폈듯이 풍영정에는 와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황은 인근의 면양정에도 시편이 걸려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그는 이 지역에 온 적이 없으며, 위 시가 걸리게 된 것은 주인과의 교유에 의해서 편지로 내왕한 결과물이다. 이처럼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고도 시문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원림문학의 한 특징이다.³⁴⁾ 신광한이나 정사룡, 또는 정응두나 민기, 남응룡 등도 풍영정에 직접 와보지 않은 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겸이나 신응시 같은 사람들은 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풍영정에 올랐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후대로 갈수록 많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풍영정에 직접 온 사람들은 김인후, 임억령, 고경명, 송순, 기대승, 박광옥, 송흙, 유희춘 등으로 호남지역의 대 문인들이다. 이들은 호남지역의 원림문화를 선도했던 주요 문인들로, 여러 누정원림을 돌아다니며 많은 시를 남기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연작제영을 남긴 김인후는 절의와 도학과 문장을 두루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그가 지은 한시는 1,600여수나 된다. 광주·전남의 16세기에 세워진 누정원림에서 김인후의 시가 보이는 곳은 소쇄원·면양정·환벽당·풍영정·물염정·관수정·요월정·환선정·송호정 등에서이다. 그중에서 연작제영을 남긴 곳은 풍영정 외에도 소쇄원과 면양정이 더 있다. 여기에서 그의 문학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그를 도학자로 평가하고 있지만, 시인으로서도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그가 풍영정을 읊은 시는 <칠계10영>을 비롯하여 12수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풍영정에 완전 귀향했을 때는 김인후의 사후에 해당되어서 풍영정에서의 창작활동이 계속되지 못한 것에 있다고 본다.

임억령도 많은 원림에서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소쇄원·서하당 및 식영정·환학당·면양정·환벽당·풍영정·풍암정·관수정·장춘정·소요정·송호정 등으로,

33) 『면양집』 권2, <贈金都事季珍彦珩, 用務友東軒韻>(7언절구 2수), <獻呈金季珍培風軒韻>(7언율시 1수).

34)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64쪽.

곳곳에서 골고루 많은 시문을 남겼다. 그는 연작제영도 많이 남겼는데, 풍영정 외에도 면양정, 서하당, 식영정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작품을 남기고, 여러 곳의 원림을 드나든 사람은 단연 임억령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억령의 『석천선생시집』에는 <풍영정7영> 만이 올라 있지만, 『풍영정시선』에는 <10영>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김언거 세대 이후에 풍영정에 시문을 남긴 사람은 180명가량이나 되며,³⁵⁾ 수진당이나 서루, 죽와 등에 시를 남긴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약 230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풍영정에서 시를 남긴 사람들은 1600년대 인물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16세기에 누정원림이 활발히 세워지고, 더불어 원림문화가 형성 발달되었다면, 17세기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 향유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풍영정의 작가들은 다른 누정원림에 비해 전 시기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陳景文³⁶⁾이나 鄭敏河,³⁷⁾ 또는 金晩植³⁸⁾ 등과 같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의 시도 있음을 감안

35) 高傳川, 高用厚 2수, 郭齊華, 具成, 權克仲, 權尙矩, 權始經, 權鞞, 權瓚, 權峴, 奇允獻, 奇協, 金鑑, 金克恒, 金克孝, 金南重, 金道浹, 金得大, 金銑, 金盛最, 金始慶, 金時言, 金始煥, 金信謙, 金益熙, 金照, 金止男 3수, 金地南, 金鎮玉, 金鎮華, 金昌翁, 金弘郁, 金希訥, 南龍翼, 南碩老, 陸長欽 2수, 柳成運, 柳承善, 柳疔, 柳泰明, 柳馨遠, 林堧, 林潭, 林檜, 閔光勳, 閔熙, 朴慶新, 朴東說 2수, 朴世火+雋, 朴彥琛, 朴疔, 朴埗, 朴弘立, 徐貞履, 徐晉履, 宋世甲, 宋時喆, 宋益憬, 申敏一, 申翊全, 申宗華, 申華國, 沈公權, 沈聖希, 沈元浚, 沈鏞, 沈之源, 沈諷, 安邦俊, 安膺壽, 梁慶遇, 梁亨遇, 魚有鵬, 呂必容, 吳大經, 吳道一, 元萬春, 俞得一, 俞樸, 尹抃, 尹世喜, 尹燧, 吳遂采, 尹瑛, 尹天秉, 尹孝先, 李景奭, 李景義, 李慶全 2수, 李廣度 2수, 李基高, 李德馨 3수, 李萬維, 李萬材, 李明翼, 李明煥, 李敏求, 李敏敍, 李士英, 李相璜 3수, 李聖求, 李星男, 李世瑾, 李昭漢, 李純仁, 李時發, 李時昉, 李植, 李安訥 2수, 李彥燮, 李彥維, 李演, 李元龜, 李溱, 李裕身, 李有仁, 李殷相, 李益在, 李益泰, 李一相, 李禎, 李廷龍, 李鼎運, 李禎翊, 李宗德, 李昌後, 李治, 李泌, 李賀朝, 李行健, 李行遠, 李迥, 李衡坤, 李衡祥, 李好閔, 任瑒, 任叔英, 任焞, 鄭斗源, 鄭麟卿, 丁時潤, 鄭載岳, 鄭之升, 鄭弘溟, 趙啓遠, 趙斗壽, 曹文秀, 趙相怵, 趙相愚, 趙守倫, 趙衍德, 趙雲明, 趙緯韓, 趙贊, 趙翼, 曹挺, 趙正萬, 趙宗裕, 趙鎮敏, 趙繼韓, 趙希逸, 崔啓翁, 崔演, 崔宗周, 河彥寬, 韓聖佑, 韓應寅, 洪景厚, 洪履祥, 洪命元, 洪命一, 洪命亨, 洪尙輔, 洪子晦, 洪柱三, 洪重夏, 黃一夏(가나다순, 178명).

36) 陳景文(1561~1642): 자는 汝郁, 호는 剡湖, 본관은 驪陽이다. 나주 곡강에서 태어났으며, 壬辰丁酉亂때 倡義하였다. 유집에 『剡湖集』이 있다.

<차풍영정운>

昔賢思邈此歸休, 飛閣纔登便解愁
 烟柳倒垂青草岸, 柴扉開近白沙洲
 高蹤已逐江流逝, 佳句空餘壁上留
 入夜幽懷更清絕, 一庭風露淒如秋 『섬호집』 권상.

할 때 참여 작가 수는 더 늘어나리라고 본다.

위 인물들은 대개 18세기 중엽의 인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풍영정시선>이 김중엽 등에 의해 정리된 이후에는 그러한 활동이 미미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풍영정은 18세기 후반 무렵이 고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시기는 호남지역 전반에 걸쳐서 활동들이 약화된 때이기도 하다.

풍영정에 왕래한 인물들은 주인과 교분이 두터운 사람도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관인의 신분으로 풍영정에 올라 차운시를 짓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즉 광주나 나주의 관찰사, 또는 인근 지역의 군수로 온 사람들의 시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풍영정이 계속 광주 원림문화의 중심지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관인들의 애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이것은 바로 관으로부터의 비호도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풍영정이 계속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풍영정의 위상

1. 풍영정의 문학적 특징

풍영정이 16세기 호남지역에 세워진 여타의 원림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시

- 37) 鄭敏河(1671~1754): 자는 達夫, 호는 簫隱 또는 歌隱, 본관은 延日이다. 담양 지실에서 태어났으며, 澈의 5대손이다. 유집에 『簫隱詩稿』가 있다.

<풍영정차벽상운>

一臥高亭三月休, 不知萬種世間愁

雲生瑞石千層嶂, 月護平湖十里洲

白鷺無心閒自睡, 行人多事去還留

樽前又有吹簫客, 何羨蘇仙赤壁秋 『簫隱詩稿』 권상.

- 38) 金晚植(1845~1922): 자는 司晟, 호는 蘭室, 본관은 光山이다. 김덕령의 후손으로 광주 충효리에서 태어났으며, 취가정을 세운 사람이다. 유집에 『蘭室遺稿』가 있는데, 1965년에 아들이 간행하였다.

<풍영정차벽상운>

三日間關一日休, 小欄光景洽消愁

鶴盤平野無涯岸, 魚戲涼波有別洲

陶度舊題苔蘚澁, 湛翁陳迹木蘭留

滔滔江水流今古, 惆愴登臨五月秋

를 남긴 인물의 폭이 광범한 데에 있다. 앞서 살폈듯이 초기에 풍영정시를 남긴 사람들의 많은 수가 호남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거의 풍영정을 직접 와보지 않고 차운시를 지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김언거가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벼슬살이하던 중에 교유를 가졌던 사람들로써, 김언거의 풍영정 시첩을 보고 여기에 차운을 한 경우이다.

한편 풍영정의 원운은 송인수가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풍영정 제영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오래된 것은 1543년에 송인수가 지은 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송순, 김인후, 임억령, 주세붕 등은 송인수의 운에 차운한다고 밝히고 있다. 풍영정 원운은 尤운(洲자와 秋자)을 가진 시로서, 송인수 이후에 차운한 작가는 200명이 넘는다. 풍영정과 같이 긴 시간에 걸쳐 하나의 운에 차운한 시가 이처럼 많은 곳은 거의 없다. 그러면 송인수의 원운시를 살펴보겠다.

<題季珍風詠亭>	계진의 풍영정에서 짓다.
半日偷閒萬事休	한나절 한가한 틈을 타서 모든 일을 쉬는데,
天涯春色迴添愁	하늘가 봄빛이 멀리 근심을 더해주네.
山圍遠近桃花洞	산은 원근의 도화동을 에워싸고,
水散東西杜若洲	물은 동서의 두약꽃 핀 물가를 흐르네.
侍從久虛難痕迹	侍從은 오래 비우면 흔적이 어려우니,
林泉雖美莫淹留	임천이 비록 아름답더라도 오래 머물 수 없는 일.
白頭如我歸田晚	나 같은 늙은이야 귀향이 늦었으니,
張翰孤舟不待秋	張翰의 외로운 배 가을까지 기다릴 것 없네. ³⁹⁾

풍영정이 1543년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지어졌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시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송인수의 시이다. 송인수가 위 시를 읊은 때는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때이고, 김언거는 낭관을 지내다 체직된 때이다. 송인수는 1543년에 명을 받고 靈光(현재의 장성)의 宋欽을 방문하여, 그를 위하여 인근 13개 고을 수령과 함께 耆英亭을 건립하기도 하였다.⁴⁰⁾ 누정원림에 그의 시가 남아있는 곳은 위 풍영정 외에 기영정과 순천에 있는

39) 『규암선생문집』 권1.
 40) 위의 책, 권4, 「연보」 <二十二年癸卯 先生四十五歲> “七月, 訪知止堂宋公欽于靈光郡, 建耆英亭.”

喚仙亭이 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선경과 같은 풍영정의 경치를 그리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심경을 읊고 있는데, 주인에게 너무 임천에서 노닐지만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아마도 정자의 주인인 김언거가 관직에서 물러나 시골에 묻혀 있으니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한 말인 듯하다.

한편 작자는 미련에서처럼 자신의 귀거래가 이미 늦었음을 말하고, 곧 떠나리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 시기 사람들 대부분은 관직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벼슬을 버리고 고향이나 전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유가적 사유방식으로써, 관직생활은 하되 언제든지 고향이나 전원으로 돌아가 수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한 사회적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누정원림이 세워지고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풍영정 차운시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하나의 운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경우이다. 이러한 까닭으로는 초기 인물 중 많은 수가 직접 와보지 않고 차운시를 지은 점과 이곳을 왕래한 사람들이 대부분 관직자들이었기 때문인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운만을 고집하다보니 음영 대상이나 내용이 한정된 면이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무등산 증암천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몇몇 누정원림들과 비교할 때 그러한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초기 원림문학에서 소쇄원이나 서하당의 경우에는 음영대상이나 내용이 비교적 가깝고 세밀하며, 제영시의 형태도 다양하다. 음영 대상이 비교적 먼 식영정이나 면양정과 비교해본다면 누정원림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의 빈번한 왕래가 있었을 때 문학적으로도 다양한 내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풍영정의 경우는 인물 폭이 넓은 대신 내용의 폭이 넓지 못한 점이 있다.

누정원림에 있어서 그곳의 경물을 한 번에 드러내는 것은 연작제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16세기에 지어진 누정원림에서 연작제영을 하는 풍습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연작제영의 작풍은 16세기에 들어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원림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풍속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풍영정에는 주변의 경관을 연작으로 읊은 <칠계10영>이 있다. 이 제영은 김인후가 맨 처음 지었으며, 여기에 이황, 임억령, 박광옥이 차운하였다. 이때 임억령의 문집인 『석천선생시집』에는 7영만이 실려 있음에 반해 『풍영정시선』에는 10영이

모두 실려 있고, 박광옥은 애초에 5영만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10영의 제목은 ‘仙滄泛舟, 懸峯邀月, 瑞石晴雲, 錦城霽雪, 月出杳靄, 羅山村店, 楊坪多稼, 柳市長林, 繡郊尋春, 院灘釣魚’로서, 풍영정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서는 풍영정의 10영을 제일 처음 읊은 김인후의 시 한 수만을 살펴보겠다.

<楊坪多稼> 양평의 많은 곡식

光羅廣野諺流傳 광주 나주 들이 넓다고 전해오는데,
 北陌東阡望渺然 북쪽 두렁 동쪽 두렁 아득히 바라보이네.
 水滿春耕江漢浩 봄갈이 물 가득하여 강한처럼 넓고,
 風高秋熟塞雲連 바람은 높아 결실이 익어감에 변방 구름 연이었네.
 農謳互答炎天景 농부가에 서로 화답하는 여름날의 풍경,
 滯穗分沾寡婦饘 흘린 이삭으로 나뉘어져 과부들의 양식에 보태지네.
 白酒黃鷄歌蟋蟀 막걸리와 닭 안주에 실술가를 노래하고
 村翁醉倒使君筵 촌 늙은이 군수 자리에서 취해 넘어지네.

위 연작제영은 팔경시를 원류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는 팔경시적인 것이나 내용은 실제적인 농촌의 풍경을 읊은 것이다. 풍영정에서 바라보이는 너른 들에 곡식이 가득한 모습과 이러한 풍요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모습이다. 경련에서 滯穗를 寡婦의 양식이 되게 하는 내용은 『詩經』 「小雅」의 <大田>을 연상하게 한다. 미련에서는 『詩經』 「唐風」의 <蟋蟀>에서 한 해 동안 노고를 한 후에 한가하게 연음을 즐기되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분히 교화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김인후는 도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위 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시의 본질을 성정의 바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고, 시의 효용으로 심성의 도야를 의도했던 것이다.⁴¹⁾ 이번에는 풍영정 차운시들이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수만을 뽑아 살펴보고자 한다.

<차풍영정운> 고경명

說歸休者未歸休 돌아가 쉬겠다고 말한 사람 귀휴하지 못했는데,
 高臥如公有底愁 공처럼 초연하게 지내는 사람 무슨 근심 있으리오.

41)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예의식」, 『한국학논집』, 3(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552쪽.

判得閒身占雲水	몸은 한가함을 얻어 구름과 물을 차지하니,
任教吾道付滄洲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의 도를 창주에 부쳤어라.
蒹葭細雨收漁網	갈대에 이슬비 오니 어망을 거두고,
楊柳微風聽栗留	양류에 미풍 이니 피꼬리소리 들려오네.
傳語陶山應首肯	도산에서 전하는 말 마땅히 수긍하여
從今不負好春秋	이제부턴 좋은 시절 저버리지 않으리.

먼저 김언거 생전에 지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경명의 시이다. 고경명은 벼슬살이 도중 1563년에 문외출송을 당해 고향에서 19년간을 지내다가 다시 기용된 사람이다.⁴²⁾ 고경명이 호남의 누정원림에서 시문을 남긴 곳은 소쇄원·서하당 및 식영정·환벽당·환학당·면양정·풍암정·풍영정·창량정·쌍벽정 등으로 나타나며, 주로 고향에서 지내는 기간에 지은 것이다. 풍영정에서는 5수의 작품을 남겼는데, 위 시는 시의 내용으로 보아 주인인 김언거가 완전히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인 1560년 이후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인다. 귀휴하여 한가하게 원림에 묻혀 사는 주인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이황이 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앞으로는 자연을 벗 삼아 한아한 삶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는 김언거의 사후에 해당되는 시, 즉 중기 시를 한 수 살펴보겠다.

<차풍영정운>	안방준
爲愛茲亭數日休	이 정자 사랑하여 수일동안 쉬면서
登臨遐矚蕩塵愁	올라와서 멀리 바라보니 속세 근심 사라지네.
山當檻外雲生礎	산은 난간 밖에 닿고 구름은 주초에서 생겨나며,
水繞沙邊露滴洲	물은 모래가 두르고 이슬은 모래톱에 떨어지네.
箇中賢達今何在	그 중에 현달한 분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壁上瓊瑤古跡留	벽 위에 주옥같은 시구 고적으로 남아있네.
却恨我來時已晚	내가 온 것 너무 늦어 도리어 한이 되고
咏歸春服不宜秋	시 읊고 돌아가는 춘복은 가을에 맞지 않네.

17세기 전반기에 주로 활동을 했던 안방준⁴³⁾의 시이다. 전구에서는 앞 시기의

42) 박은숙, 『고경명 시 연구』(집문당, 1999), 참조.

43) 안방준(1573~1654): 자는 士彦이고, 호는 氷壺·隱峰인데, 일명 牛山선생이라고도 부르며, 본관은

시들에서와 같이 선경과 같은 풍영정의 풍경을 노래하였고, 후구에서는 문미에 걸린 시판들을 보고 옛사람을 상기하며 그들을 만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고 있다. 위 시는 김언거와 약 1세기가 차이나는 후대사람이 지은 시이다. 역시 후대인이 지은 시답게 앞서 사람의 유적을 보고 회고하는 내용이다. 누정원림이 세워진지 1~2세대가 지나면 음영 내용이 대부분 앞서 사람의 행적을 회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직자들의 시 대부분에는 관직생활에 대한 바쁨이 들어있는데, 위 시는 그것과는 반대로 한가함이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작자의 신변현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다. 안방준이 누정원림에서 시를 남긴 곳은 풍영정 외에도 金德普의 楓巖亭과 梁仁容의 松石亭 등이 있다. 다음은 관직자의 시인데, 훨씬 후대에 지어진 시이다.

<敬次> 장성부사 홍경후

亭下江流流不休 정자 아래 강물은 흘러흘러 쉬지 않는데,
 登臨爲散簿書愁 높은 곳에 올라보니 관문서의 근심 사라지네.
 繞簷花氣紅分壑 처마를 두른 꽃기운 붉게 골짜기로 번지고,
 滿砌槐陰綠蘸洲 섬돌 가득 해나무 그림자 푸르게 물가까지 잠겼네.
 已覺名區多勝槩 이미 명승지에 훌륭한 경치 많은 것을 깨달아
 遂教征客少遲留 나그네로 하여금 조금 지체하여 머물게 하네.
 催歸未了湖山債 돌아갈 길 재촉하여 호산의 빚 다 갚지 못했으니,
 汀月溪楓更卜秋 강가의 달과 시냇가 단풍 구경은 다시 가을을 기약하네.
 참판 여공은 소자에게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소자가 마침 이웃 고을의 부신을 차고, 공무를 틈타 풍영정에 올랐다. 주인이 한권의 시를 소매에 넣고 와서 보여주는데, 시권 가운데는 국조 명현들의 시가 많았으나, 정자에 걸린 것은 약간만 있고 시권에는 많았다. 공의 시도 또한 걸리지 않았었다. 이제 백사 년 후에 이 정자에 올라 이 시를 보니, 공허한 느낌을 이기지 못하고, 삼가 그 시운을 따라 지어서 한 현판에 같이 건다. 1796년 6월, 장성부사 홍경후.44)

竹山이다. 전라도 보성군 오아리에서 僉樞公 重寬과 珍原朴氏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竹川 朴光前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였으며, 14살 때 姊夫였던 蘭溪 朴宗挺에게 배웠고, 19살 때에는 牛溪 成渾의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학문하였다.

44) 『풍영정시선』 169~170쪽, “參判呂公, 於小子爲外王考. 小子適佩隣符, 因公幹歷登風詠亭, 主人袖一卷詩來示, 卷中多國朝名賢詩, 而揭諸亭上者少留之, 卷中者多, 公之詩亦未揭焉. 今於百四年之後, 登是亭覽此詩, 不勝曠感之懷, 敬次其韻同揭于板. 丙辰流月, 長城府使洪景厚.”

당시 장성부사이던 홍경후⁴⁵)가 지은 시로, 글을 짓게 된 동기를 시의 말미에 적고 있어서 작시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홍경후는 공무 중 풍영정에 올랐으나 오래 머물 수는 없어서 풍영정의 경치를 마음껏 완상하지 못하고, 다른 때를 기약하고 있다. 그가 풍영정에 올랐을 때 주인이 시권을 보여주었는데, 명현들의 시가 많이 실려 있다고 했다. 아마도 <풍영정시선>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정자에 걸린 것은 약간만 있고 시권에는 많았다고 하여 정자에 걸린 시보다 시권에 실린 시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위 <풍영정시선>은 앞에서 말했듯이 김중엽이 『江湖漫詠』을 지을 당시인 1776년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呂必容(1655~?)은 1693년 초겨울에 공무 차 지나는 길에 들른 적이 있다. 관직자들이 풍영정의 주요 향유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상에서 풍영정을 왕래한 인물의 폭은 넓으나 두텁지 않으며, 때문에 음영 대상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지 못한 점 등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후기시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들은 바쁜 일상에서 호남의 명승지를 찾아 잠시나마 번거로움을 잊고 자연의 경관을 즐기기도 하였다. 풍영정이 위치한 자연적 조건 때문에 거시적인 경물을 읊고 있는 것에서는 초기나 후기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초기시가 대부분 경물의 아름다움과 함께 주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당부나 염원이 담겨있는 반면, 후기 시에서는 자신의 심회나 앞서사람의 행적에 대한 회고를 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사회 문화사적 위치

호남지역의 대부분 원림들은 모두 개방적인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주인과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또는 지나는 길에 정자에 올라 앞서사람의 시에 차운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시문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연회활동과 함께 강학활동, 향촌민 교화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행하였다. 풍영정의 경우는 풍광이 수려하고, 광주와 나주의 경계에 위치해 있던 관계로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좋아서 일반 사족이나 관료들의 모임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

45) 洪景厚(1734~1798): 자는 載汝, 본관은 南陽이다. 1795년에 장성부사가 되었고, 위 시는 그 이듬해 지은 것이다.

았다. 그래서 많은 누정원림이 후대에 가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져 적료해졌음에 비해 풍영정은 쓸쓸해질 겨를이 없이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원림이 후대에까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초축자의 뛰어난 활동과 공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언거는 고향에서나 중앙에서 폭넓은 교유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풍영정을 홍보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문과급제와 함께 오랜 관직생활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그 위치는 확고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명망있는 인물들의 출입과 작품이 남아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풍영정만큼 다양한 명류인사들의 시문이 남아있는 경우도 드물다. 당대의 학자로 유명한 이항, 김인후, 조식, 기대승 같은 사람이나 또는 당대 시인으로 유명한 임억령, 송순, 신광한, 정사룡 등이 김언거와 교유하였으며, 그들의 작품이 정자에 빼곡히 걸려있다. 셋째로는 이를 이어가고 발전해나갈 후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풍영정은 김언거의 생전보다는 그의 후손 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관리로 부임한 사람들은 대부분 풍영정에 올라 시 한 수정도 남기는 일을 의례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풍영정에는 현재 250여명의 참여 작가와 300여수가 시가 집적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손들의 역할이 지대하였다고 할 수 있다. 후손들은 풍영정과 한 구역에 자신의 당을 지어놓고 풍영정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풍영정의 현관시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외지인의 작품이나 다양한 인물들의 작품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김언거의 교유관계가 폭넓었음을 의미하며, 풍영정의 시문을 받기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후대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찾아오는 토대가 되었다. 후기에는 관직자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대로 갈수록 시문을 남긴 사람들은 거의 광주나 인근 지역에 부임해온 관직자들이었다. 선대의 명망있는 인물들의 시문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후대 사람들도 이곳에 의도적으로 올라 자신의 선조 시문 뒤에나 또는 앞서사람의 시에 차운하는 행사를 가졌다.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기념행사로써 풍영정에 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대에 풍영정에서 시를 남긴 사람 중에는 관직에 있던 사람인 경우가 많음을 이미 밝혔다.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있게 하는 간찰을 한 통 살펴보겠다.

(중략) 내일 남평에서 광산으로 향한다는 당신의 말씀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길을 바꾸어 천천히 풍영정으로 향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당신께서도 일찍 와서 기다려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짧은 시간에 쌓였던 회포를 모두 풀기가 어려우니, 함께 광산으로 가서 하룻밤을 머물러 얘기를 나누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비록 영암과 나주의 문서가 번다함이 있을지라도 밥 한 끼 먹는 사이에 문서를 해결해 내었는데, 하물며 광산이겠습니까? 바라건대 당신께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바탕 웃습니다. 나머지는 만날 때를 기다리고, 이만 줄입니다. 병자년(1696) 9월 16일, 아우 萬吉 올림.⁴⁶⁾

위 편지는 전라도 관찰사로 있던 金萬吉⁴⁷⁾이 보낸 편지로, 비를 만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함과 함께 상대방이 직접 光山으로 오려고 한다는 편지를 받고, 풍영정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내용이다.

이처럼 인근의 많은 관직자들은 풍영정에서 회합을 가졌으며, 그때 시를 짓기도 했던 것이다. 위 김만길의 시는 현재 풍영정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풍영정에 남아있는 후기 대부분의 제영시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이 정자에 올라 지은 시이다. 관찰사나 목사 또는 군수 등이 출입하는 곳이니, 관의 비호도 받았을 것이고, 풍영정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식은 남달랐으리라고 생각된다.

한편 풍영정은 16세기에 지어진 대부분의 정자처럼 애초에 원림으로써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곳에는 연꽃을 심은 연못이 있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16세기에 세워진 원림은 입지가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연못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쇄원이나 서하당, 환벽당 등과 같이 연못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형태는 후대에 변형을 보이기도 하지만, 방형의 연못이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풍영정의 경우도 방형의 연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풍영정 원림 내에도 여러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화단이나 화계 등이 조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원림들이 평지가

46) 옥과미술관 소장, <김만길의 간찰>, “(중략) 明自南平, 當向光山矣, 令教如此, 從當改路, 迤向風詠亭, 幸令早來, 以待如何如何? 片晌之間, 難盡褻積之懷, 偕往光山, 以爲一宵從頌之地, 至望至望. 雖以靈羅簿牒之繁, 一食之頃, 案牘如洗, 況光山乎? 望令勿以爲慮焉. 呵呵. 餘俟奉, 不宣式. 丙九月十六日, 弟, 萬吉, 頓.”

47) 金萬吉(1645~1697): 자는 子迪, 본관은 光山이다. 金長生의 후손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다.

아닌 산지에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계단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 가지 초본류나 목본류를 심는 것이 일반적이다. 풍영정 또한 당연히 그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다.

풍영정의 건물 형태는 소쇄원이나 면양정 등의 모습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에 있는 良菰洞亭⁴⁸)이나 芙蓉亭⁴⁹)의 모습을 본뵈었 것으로 생각된다. 16세기에 호남지역에 세워진 정자들이 대부분 방을 하나 가지고 있는 형태임에 비해, 풍영정은 마루로만 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 있는 양과동정이나 부용정도 마루로만 되어 있다. 양과동정은 고려시대에 세워진 정자로, 이때 세워진 정자의 대부분은 마루로만 되어 있고, 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초에 지어진 金文發의 부용정도 이러한 풍습을 이어받은 듯하다. 이것은 고려시대 樓의 양식을 따랐다고 생각되는데, 이 환경과 가까운 풍영정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형태는 매우 공적이어서 향촌사회의 문화중심 공간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V. 맺음말

풍영정은 무등산권에 세워진 누정원림이지만, 광주호 주변에 있는 원림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 소쇄원이나 서하당의 경우 매우 가까운 경물을 섬세하게 읊고 있음에 반해, 풍영정의 경우는 거시적인 경물을 읊고 있거나 작자의 심회를 읊은 경우가 많아 섬세한 경물 묘사 부분에서는 약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원운에 대한 차운시의 형태에 얽매인 것으로, 그만큼 행사용으로 지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한 사람의 작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다보니, 경물에 대한 심도있는 표현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풍영정이 며칠씩 머물며 사색하는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 즉 개방적이고 의례적인 공간이었음을 뜻한다.

48) 良菰洞亭: 광주 포충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諫院臺라고도 한다. 삼한시대 또는 신라시대에 건립되었다고 하며, 洞約이나 鄉約의 시행처로 사용되었다. 고경명의 <題良菰茅亭>, 박광옥의 <次柳谷茅亭韻>, <題諫院臺>, 송인수 등의 시가 있다.

49) 芙蓉亭: 金文發(1359~1418)이 지은 정자로, 고경명, 양응정, 이안눌, 김형, 박제형 등의 시가 있다.

풍영정 작가들은 주변의 다른 누정원림의 작가들에 비해 외지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도 풍영정만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초축자인 김언거 시절에 폭넓은 교유활동으로 토대를 넓혀놓은 것이 후대에까지 크게 작용하였으며, 또한 그의 관직생활의 영향이 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풍영정은 축조시기를 김언거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같은 무등산권에 있는 김윤제의 환벽당과 같은 경우도 나주목사를 끝으로 귀향하여 지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나, 후대에 누정원림을 축조하는 목적이 退休之所로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16세기 무등산권에 세워졌던 원림 대부분이 벼슬살이와는 상관없이 젊었을 때부터 이미 축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직접 실천한 경우이다. 소쇄원의 경우는 축조계기가 은거를 위한 목적에 있었지만, 양산보도 벼슬에 대한 꿈을 버리기 전에 이미 별서를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면앙정의 송순도 젊었을 때 이미 원림의 터를 물색해두었던 것이다. 환벽당의 김윤제 역시 젊었을 때부터 원림을 가꾸어왔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그곳에서 한거할 수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있던 사대부는 누구나 별서나 정자를 경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즉 16세기의 원림 축조의 유행현상을 알지 못하고, 후대인이 그 시대의 눈으로 보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풍영정은 호남지역에 원림이 활발히 축조되는 16세기에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어서 호남의 원림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풍영정에서는 다른 원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을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관직자들이 행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후손들이 원림을 유지하고 가꾸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볼 수 있으니, 그 후손들은 풍영정을 가꾸기 위해 원림 주변에 자신들의 당을 지어놓고 지냈으며, 이러한 점이 더욱 풍영정이 도중에 황폐해지거나 적막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풍영정은 광산김씨 한가문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원림문화를 대표하는 정자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 고경명, 『국역제봉전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고경명, 『靄峰集』. 한국문집총간 42, 한국고전번역원, 1617.
-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風詠亭詩選』. 광주: 호남문화사, 2007.
- 기대승, 『高峰集』. 한국문집총간 40, 한국고전번역원.
- 김언거, 『漆溪集』. 1922.
- 광산김씨칠계공파문중, 『漆溪遺集』. 광주: 호남문화사, 2004.
- 김중엽, 『江湖漫詠』. 광주: 풍영정, 1776.
- 송순, 『侂仰集』. 한국문집총간 26, 한국고전번역원, 1829.
- 송인수, 『圭菴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4, 한국고전번역원, 1935.
- 이황, 『退溪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29~31, 한국고전번역원.
- 임억령, 『石川先生詩集』. 한국문집총간 27, 한국고전번역원, 1572.
- 임억령, 『石川集』. 서울: 여강출판사, 1989.
- 정민하, 『簫隱遺稿』. 담양: 계당, 1968.
- 조식, 『南冥先生集』. 한국문집총간 31, 한국고전번역원, 1609.
- 주세붕, 『武陵雜稿』. 한국문집총간 26~27, 한국고전번역원, 1895.
- 창평향교, 『昌平鄉校誌』. 광주: 낭주인쇄사, 1997.
- 황준량, 『錦溪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37, 한국고전번역원, 1755.
- 권수용, 「16세기 호남 무등산권 원림문화」. 『인문연구』 5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357~398쪽.
- 박연호, 「광주 풍영정 원림의 공간특성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 36,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31~51쪽.
- 박은숙, 『고경명 시 연구』. 서울: 집문당, 1999.
-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2007.
-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예의식」. 『한국학논집』 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0, 543~556쪽.
- 이성호, 「사대부문학 형성기의 한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국 문 요 약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극락강변의 숲속 언덕에는 풍영정이 자리하고 있다. 칠계 김언거가 경영했던 이 정자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무등산 증암 천 주변의 정자들과는 모습을 약간 달리한다. 우리는 풍영정의 겉모습에서 수기치인을 위한 장소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연회의 장소로 쓰이기에 적당했음을 알 수 있다.

풍영정은 김언거가 1543년경에 축조한 이래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면서 광주권 문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풍영정 제영에 차운시를 남긴 사람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의 시에 차운시를 남긴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누정원림들이 축조당시만 활동이 활발하다가 그 이후에는 적막해진 것에 비해, 이 정자는 광주의 대표 정자로써 줄곧 그 명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광주나 인근지역에 부임해 온 관직자들은 의례히 풍영정에 올라서 시 한 수 남기는 행사를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풍영정이 광주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써 그 명성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풍경이 수려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광주·나주·장성 등지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지리적 이점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초축자의 역량이나 후손들의 수호노력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오랜 기간 문화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 투고일 : 2009. 7. 9. ● 수정일 : 2009. 9. 3. ● 게재확정일 : 2009. 9. 2.
- 주제어(keyword) : 풍영정(the Pungyeongjeong), 김언거(Gim Eon-Geo), 문화공간(a cultural place), 누정원림(arbor gardens).